

들이 선동해 일어난 국가적 반역이었다고 확고한 의지로 말씀하셨고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억지로 심어주어야 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야당 정치인의 지지 기반이었던 광주를 본보기로 탄압하려고 한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한 그 소중한 항쟁이 더 이상 이념적 색깔론에 휘둘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더불어 공교육에서 더 많은 자료와 교육으로 용감한 시민들이 이끌어 낸 가치 있는 승리를 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꼭 금기를 깨뜨려야만 주인공은 비로소 행복해 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동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5·18을 민주화 항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오해와 이분법적 사상론의 금기를 깨야 할 것이다. 30년 전 광주에서 의로운 항거를 했던 주인공들에

게 이제는 진심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결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글 이유민 |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시 '비분강개의 두가지 이유'로 2008년 5·18민중항쟁기념 서울청소년대회(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주최) 운문부문 최우수상 수상



억지 시나리오였다고 설명해 주셨다.

90년대에 들어서셔야 겨우 광주에 대한 언급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씩씩한 뒷모습에 적잖이 실망을 하고 무척 화가 났었다.

광주의 아픔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5·18항쟁은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를 향한 광장으로 불러 모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잊혀진 빛바랜 사진의 비애

글 · 마미혜

흑백 사진 한장

세상의 모든 색을 다 담고도
한가지의 빛깔밖에 내지 못하는
짙은 회색의 비애처럼
세상의 모든 불평등을 소리내고도
한가지의 이유로 고통스러웠던
회색 사진 속 광주의 모습

차리리

오월의 푸른 하늘 빛이나
검은 곤봉과 장총의 섬뜩함이
붉은 민주화의 꽃잎과 함께
색색이 선명하게 그려졌다면
덜 슬프고 아팠을까?

회색빛 아스팔트 위에

그 보다 더 회색빛의

쓰러진 젊은 청년과

무자비한 진압군의 발길질이

명암을 달리하며 점점 짙어지네

흑백 사진 한장에 담긴

색깔없는 오월정신이

세상의 어떤색보다 강렬하게

가슴에 선명한 인상을 남기네.

그 사진을 보게 된 계기와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의 충격과 느낌만은 아직도 내 몸 구석구석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서울에서 고속철로 3시간 남짓인 멀지 않은 그곳 광주에 나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 친인척을 포함해 부모님의 지인들까지 모두 서울과 경기권에 살고 계신 이유로 광주는 내게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멀리 존재해 있던 낯선 곳이었다.

영화 <화려한 휴가>로 높아졌던 5·18 민중항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세간에서 사라질 때 즈음, 학교 도서관에서 책들을 둘러보다 아주 우연히 그 사진과 맞닥뜨렸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관한 사진들과 설명을 담고 있던 책 중간부분에서 어떤 고화질 사진보다 선명한 인상을 남게 한 그 흑백사진은 그대로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렸다.



내려가 무고한 시민들과 어린학생들을 학살했다는 앞과 뒤를 다 자르고도 모자라 원인과 결과에도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성의 없는 설명이었다.

더구나 역사적 가치가 다른 4·19혁명과 6월민주항쟁 역시 그저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과 새마을운동, 5·16쿠데타 사이에 집어넣어 그 의미와 진정성을 되새길

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 내가 지금 당연히 누리고 사는 것들이 지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안타까운 희생 속에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물임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사회시간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5·18민주항쟁에 관한 수업내용이나 언급은 중학교 2학년 국사시간 단 한번 뿐이었다. 연도 별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을 정리하고 시험에 낼지도 모르니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당부에서 시작된 5·18에 관한 수업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명료했다.

전두환 신군부가 불온한 사상을 가진 간첩과 같은 사람들을 소탕하겠다는 잘못된 명분으로 무작정 광주로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암기만을 강요했다.

프랑스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은 그 의의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달달 외워야 하며 필기까지 칠판을 가득 메우며 열정적으로 가르치신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서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 실망감마저 들었다. 분명 역사적으로 세계3대 혁명은 왕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기에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기려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한다.

하지만 세계사의 중요한 흐름이 있듯이 우리 역사에도 오늘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 일을 그냥 과거사로 뭉뚱그려 중요한 순서대로만 인식시키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미래의 역사를 써 나가야하는 세대에 대한 올바른 배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막연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거기에 버릇까지 없는 10대란 평가를 하기 전에,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하는 지상 최대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사회적 낙오자라는 엄포를 놓기 전에, 어른들은 왜 존경할만한 이 사회의 민주화의 열망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만을 앞세우는 이 사회에서 과정을 들여다보고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이념공부는 성공의 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에 과감히 삭제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 세계 3대 시민혁명을 이룬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자긍심이 우리에게겐 그리 많이 생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인터넷 신문기사에 버마에서 온 인권운동가가 5·18민주항쟁을 해외언론을 통해 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군부독재였던 자신의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쓴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민주화를 꿈꾸고 가슴 아픈 희생을 치루더라도 이뤄내고 싶은 그 바람은 버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도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고 서술하며 그는 용산참사를 예로 들며 우리사회에서 점점 목소리를 잃어가는 민주화 정신과 사회적 무관심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어느 사회나 100퍼센트 완전히 민주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본인의 뜻대로 사회를 움

직인다면 그 역시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 공익과 건전한 여론의 형성은 보장되어야하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지 군부를 몰아내고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며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 묵인해서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지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지도자는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 받고 있지만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무자비한 진압과 고문으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까지 감내하며 국가적인 지원이나 진실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던 상황이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인 것이다.

5월 광주의 모습이 빛바랜 과거 사진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아직도 진행 중인 민주화의 열망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마음속 이정표로 기억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글 마미혜 | 풍문여자 고등학교 1학년, 시 '흑백 사진 한장'으로 2008년 5·18민주항쟁기념 서울청소년대회(5·18민주항쟁 서울기념사업회 주최) 운문부문 최우수상 수상